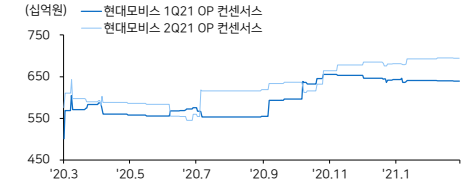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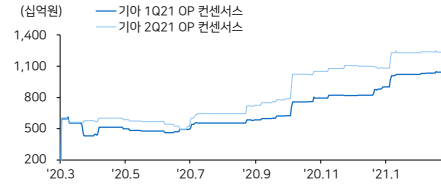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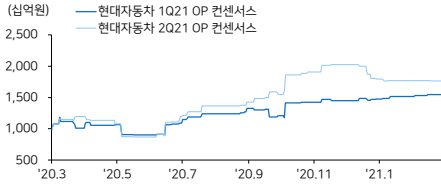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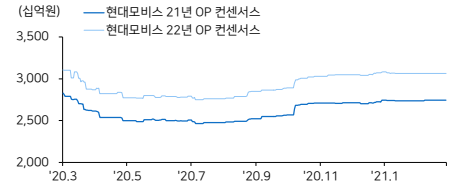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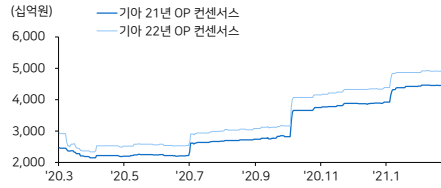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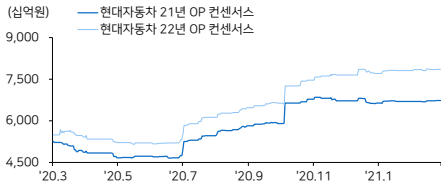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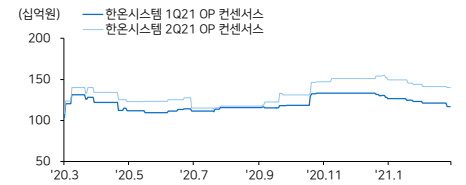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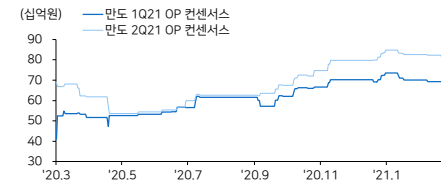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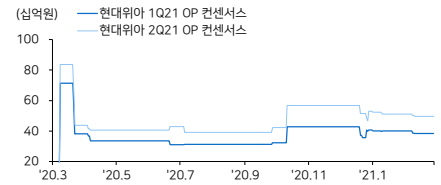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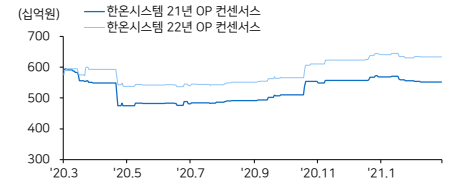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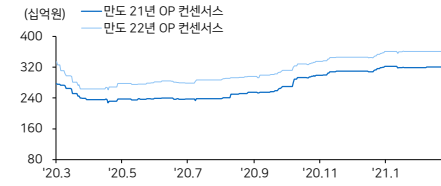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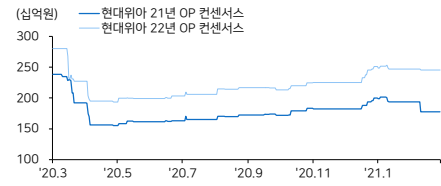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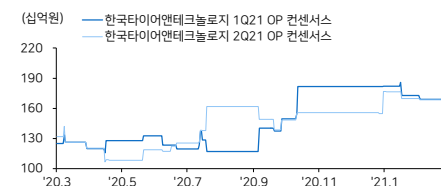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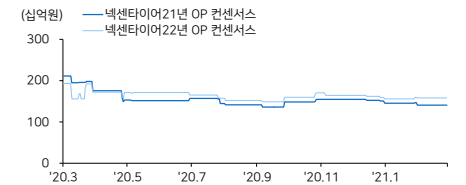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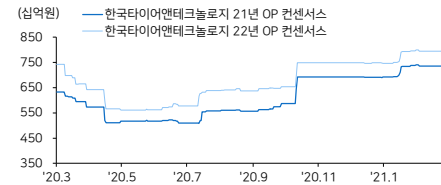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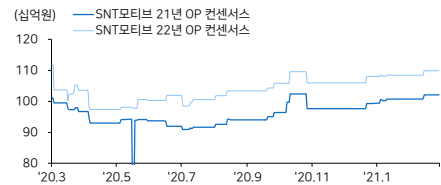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포르쉐 · 페라리까지 제쳤다...기아, 전기차 EV6 첫 공개 (한국경제)

기아는 30일 글로벌 웹사이트를 통해 EV6를 전 세계에 소개함.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를 롱레인지 모델 기준 450km 이상으로 늘렸으며, 고성능 버전인 GT 모델은 제로백이 3.5초로, 경쟁 모델들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줌. <https://bit.ly/3m4LxCr>

현대차 · 기아, 국내서 안 팔리는 후 잇달아 단종...선택과 집중 (전자신문)

현대차는 지난해 말까지 대표 해치백 모델 i30와 벨로스터(벨로스터 N 제외), 아이오닉을 순차 단종하고, 최근 일부 남아있던 제고 소진율 마저 국내 판매를 완전히 종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생산 · 판매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의도. <https://bit.ly/3rC82Qu>

에어아시아 차량 호출 진출...자율주행 택시 · 트럭 승부수 (조선비즈)

자동차뿐 아니라 트럭, 드론 등 모빌리티 시장 내 이동 수단은 다양하게 확대되는 가운데, 플레이어 역시 기술 기업뿐 아니라 항공사 등 전통적인 기업까지 가세하는 중. 자가 항공사인 에어아시아도 렌터카 및 드론 택시 시장에 진출 예정. <https://bit.ly/3rwhpBa>

알리바바 합작 전기차 4월 19일부터 예약구매 돌입 (ZDNet Korea)

알리바바와 상해자동차의 합작사 '지치자동차'의 첫 세단인 내달 19일 예약 판매 예정. 신차 인도는 올해 연말 이뤄질 예정이며, 지치자동차는 국가의 규제 상황에 따라 올해 연말 포인투포인트 자율주행 기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 <https://bit.ly/3dmcyeS>

반도체 대란'에 결국 현대차도 타격...울산공장 일주일간 휴업 (연합뉴스)

현대차는 울산1공장이 부품 수급 문제로 4월 7~14일 휴업한다고 30일 밝혔. 현대차는 이번 휴업에 대해 코나는 전방 카메라 반도체, 아이오닉 5는 PE모듈 수급 차질이 각각 원인이라고 설명함. <https://bit.ly/3fo2W51>

중 청정차 '연내 첫 수소 SUV · 트럭 출시'...현대차 '경쟁' (THE GURU)

중국 최대 SUV 제조사인 청정자동차(Great Wall)가 연내 첫 수소 SUV와 수소트럭을 내놓기로 함. 공격적인 수소차 보급 계획을 추진 중인 현대차와 경쟁 관계를 이어갈 전망이다. 인프라 보급 확산 측면에서는 긍정적. <https://bit.ly/3u5LUQe>

Tesla Model Y demand in China remains stable despite price hike: report (Teslarati)

지난주 Tesla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Model Y의 가격을 약 1,200 달러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Tesla 스톡의 방문객 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차량 수요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됨. <https://bit.ly/39rwygX>

중BAK, 원통형 배터리 공개...테슬라 정조준 (THE GURU)

BAK가 중국 배터리업체 최초로 테슬라의 차세대 배터리로 알려진 '4680 원통형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으며, 내년 대규모 양산 돌입 예정. 4680 원통형 배터리는 테슬라가 차세대 배터리로 낙점한 제품임. <https://bit.ly/2PH9N1m>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